

# 한방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 분석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 연구

전재윤\*, 남지환, 이민정, 김기원, 임수진, 이종환, 이슬지

자생한방병원 침구의학과



## [Abstract]

### Research on Way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Based on Analysis of Foreign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 of Korean Medicine

Jae Yun Jun\*, Ji Hwan Nam, Min Jung Lee, Kie Won Kim, Su Jin Lim, Chong Whan Lee and Seul Ji Lee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tual status of foreign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 of Korean medicine and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medical tourism.

**Methods** : This study includes 675 foreign patients who visited spine-specialized hospital of Korean medicine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2. Based on computerized medical records, patients' age, gender, country, date of initial and last visit, chief complaint, treatment period and species of treatment were collected. These data were used for analyzation of actual condition of medical tourism at hospital of Korean medicine.

**Results** : A total of 675 foreign patients visited spine-specialized hospital of Korean medicine. 395 patients(59 %) were female and the forties was the most common by ages. Patients from Japan were the most common followed by Russi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Patients visited hospital 5.1 times during 27.4 days in average. There were 526 cases of spinal pain and only 52 cases were non-musculoskeletal disease.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treatment was general acupuncture treatment while moxibustion and bee venom acupuncture were remarkably infrequently treated.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potential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Korean medical tourism focused on disease cure as well as current trend of beauty and Korean medical experience at the Korean medical tourism field.

#### Key words :

Medical tourism;  
 Korean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Received : 2013. 08. 09.

Revised : 2013. 08. 28.

Accepted : 2013. 08. 28.

On-line : 2013. 09. 20.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858, Eonju-ro, Gangnam-gu, Seoul, 135-896 Republic of Korea  
 Tel : +82-10-7141-3822 E-mail : pabbang@naver.com

## 1. 서 론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소득의 증대에 힘입은 의료 소비자들은 더 경제적이거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료 관광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2010년 3월 한방의료관광협회 발족 및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방 의료 global project의 일환으로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sup>1)</sup>. 요컨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의료관광 상품에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보유한 한의학을 적극 활용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아쉽게도 의료관광의 세부 구성 및 정의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보건 분야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문을 발굴, 개발하고 관광을 상품화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 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관광 활동과 결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 의료에 관광을 접목하여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 활동을 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건강을 위한 검진 및 치료와 같은 의료행위와 휴양 및 여가, 문화체험 등의 관광활동이 연계된 다목적 관광을 일컫는 용어 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외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촉진(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시설이나 목적지,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형태, 수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관광과 결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수술 또는 치과치료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휴가를 즐기기를 위한 장거리 여행 등으로 의료 관광을 정의하고 있다<sup>3-7)</sup>.

의료관광은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위해 집을 떠나 여행하는 유형으로 정의되는 협의의 개념과 병 또는 미용을 위한 수술과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휴양 및 레저 활동을 같이하는 관광의 유형으로 정의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뉜다<sup>6)</sup>.

이러한 의료관광은 크게 수술 등을 통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 미용이나 성형 등을 위한 것, 전통 의학 체험을 위한 것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sup>5,8,9)</sup>.

의료관광의 장점은 진료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가 일반 관광객의 두 배 이상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sup>10)</sup>하는 동안 2차적인 관광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는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 동안 지출 액수가 많으며 진료비 역시 내국인 환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 환자에 대비한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107.5%, 2010년 136.4%, 2011년 147.5%로서 효율적인 진료 수익을 보이고 있다<sup>11)</sup>.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sup>11)</sup>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의료 관광을 통하여 2009년 약 547억, 2010년 약 1,032억에서 2011년에는 약 1,810억의 진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원활한 진료를 위한 통역사,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 기관 주변의 숙박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의 고용 창출 효과 역시 2011년에만 2,500명이 넘었다<sup>11)</sup>.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의료관광으로 인한 연간 수입액은 2011년 약 3,560억 원, 2015년 약 1조 2,740억 원, 2020년 약 5조 5,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의료관광은 약 9조 4,1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1만 6,8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2)</sup>.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에 힘입어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0,201명으로 시작하여 2010년 81,789명, 2011년 122,29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5만 명, 2013년에는 20만 명, 2020년에는 100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1)</sup>.

이와 같은 고부가 가치를 지닌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요르단에서는 심장수술, 장기, 골수 이식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관광 상품에 주력하고 있고, 인도·태국은 만성 질환과 알레르기, 디톡스 등을 전통의학과 결합하여 상품화하였으며 말레이시아·멕시코·아르헨티나·태국 등은 가격경쟁력과 의료수준을 고려한 성형수술 및 피부질환과 연계한 의료 관광 상품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용, 성형 등을 위주로 한 의료관광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의료관광 산업에 발 빠르게 대처한 태국·인도·싱가포르 등은 2010년에만 각각 약 156만 명, 약 73만 명, 약 72만 명의 환자를 유치하여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비해 점유율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한방 의료관광은 다른 진료 과목과 비교하여 연평균 127.2%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sup>11)</sup>,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마케팅 조사에 따르면 한국 재방문 시 이

용하고 싶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35%가 한방 진료라고 답변하여 세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sup>3)</sup>.

우리나라는 3.5시간(인천 공항, 비행시간 기준) 내에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51개나 존재하여 기본적인 지리적 이점이 있다<sup>4)</sup>. 이로부터 한국 주변의 일본·러시아·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방 진료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11년 한방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일본인의 비율이 78.1%에 달하였다<sup>1)</sup>.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가문화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의료관광 상품 또한 고급화될 것이며, 의료관광 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로 주목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sup>6)</sup>. 한국 특유의 한방 진료, 지리적 이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방 의료관광은 앞으로의 부가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의료관광 관련 연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또는 외국인 환자의 선택 속성 등에 대한 것이 많았다. 의료관광 관련 통계자료의 특성상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 자료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 치료 내용을 반영할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연구 및 발표는 미비한 수준이다.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연구 역시 일본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환자 또는 의료 기관 종사자의 설문 조사를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치료 목적으로 한방 진료를 선택한 외국인 환자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보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2012년 척추전문 한방병원을 내원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현황과 진료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향후 치료 목적의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척추전문 한방병원에 초진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은 모든 외국인 환자 6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적이 외국인 환자 중 한국인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본 연구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 2. 조사 방법

675명의 외국인 환자의 전산화된 진료기록부로부터 성별, 연령, 국적, 초진 일자, 진료 기간, 방문 횟수, 주상병명 및 주소 증상, 치료 종류 등을 수집하였다.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연구승인신청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후향적 분석 연구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의 자료 이용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서 없이 진행 가능함을 승인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I. 결 과

### 1. 성별 및 연령별 분석

전체 675명의 외국인 환자 중 여성이 395명(58.5%), 남성이 280명(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는 40대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환자는 40대와 50대가 각각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 중 40대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90대 환자는 없었으며, 100세 이상 환자는 13명이었고 10세 미만의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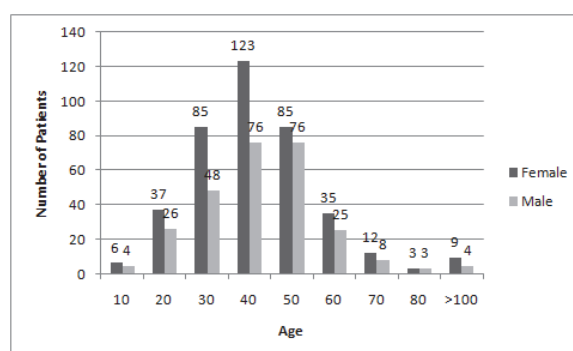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 2. 국적별 분석

외국인 환자의 국적 중 일본이 262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중 3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러

시아가 133명, 미국이 74명으로 세 국가의 외국인 환자가 4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의 69.5%로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일부 국가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총 49개국으로부터 외국인 환자의 내원이 있었으며 15개 국가는 내원 환자가 1명에 그쳤는데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가 높은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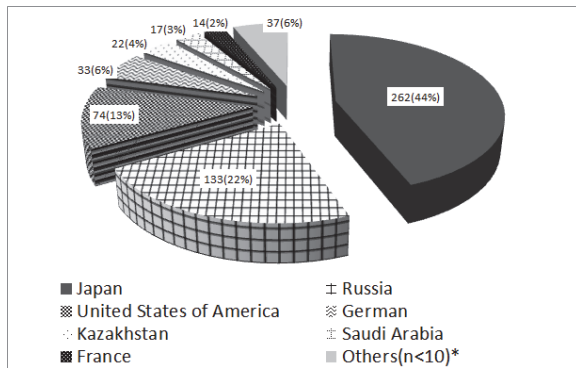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 : others include Italy, Brazil, United Kingdom, Australia, Austria, Canada, Indonesia, India, Singapore, United Arab Emirates, Kyrgyzstan, Spain, Mongolia, Ukraine, Belgium, Netherlands, Hongkong, Philippines, Qatar, Uzbekistan, Azerbaijan, Swiss, Sweden, Romania, New Zealand, Republic of South Africa, Greece, Nigeria, Nepal, Denmark, Lithuania, Malaysia, Venezuela, Vietnam, Bosnia, Ireland, Ecuador, Jordan, China, Costa Rica, Thailand and Turkey.

### 3. 월별 내원 환자 분석

외국인 환자는 5월에 71명이 내원하여 가장 많았는데 특징적으로 5월을 전후로 하여는 오히려 내원 환자 수가 다른 월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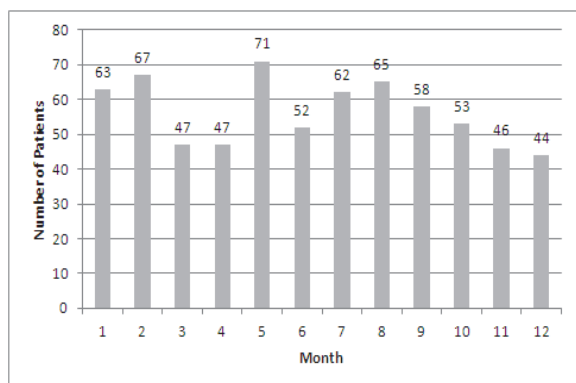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month

으로 연중 특정 시기에 뚜렷하게 집중되기 보다는 고른 분포로 내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하절기 이후로는 환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3).

### 4. 내원 횟수 및 치료기간 분석

본 항목은 이번 연구에서 2012년 초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하여 치료 기간이 2012년으로 한정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는 570명이었고, 나머지 105명은 2013년까지 치료가 이어졌다.

2012년 이내에만 치료를 받은 환자는 평균 5.1회 내원하였으며, 평균 진료 기간은 27.4일이었다.

전체 외국인 환자 중 내원 횟수가 1회에 그친 환자는 159명에 달하였으며, 내원 횟수는 1회부터 최대 48회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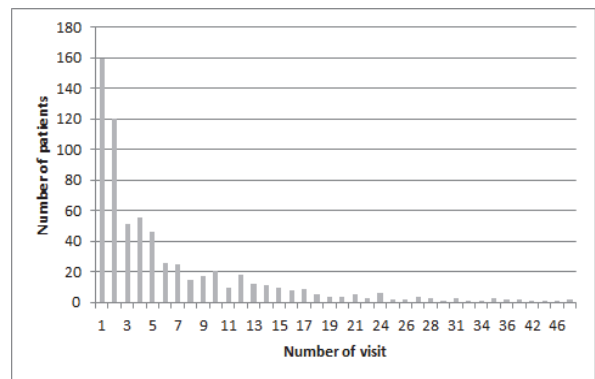


Fig. 4.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number of visit

### 5. 질환별 분석

#### 1) 근골격계 질환

전체 외국인 환자 중 근골격계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중복된 부위를 포함하여 650건에 달하였다. 그 중 요추 및 경추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523건(80.0%)으로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흉추부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3명에 그쳤다.

관절부 통증을 호소한 경우는 124건(18.5%)이었으며, 슬관절, 족부 및 족관절, 견관절 환자가 99명(14.7%)으로 관절부 통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Musculoskeletal Chief Complaint

Chief complaint	Cases%(n=650)
Low back pain	298(45.8 %)
Neck pain	225(34.6 %)
Knee pain	51(7.8 %)
Ankle, foot pain	25(3.8 %)
Shoulder pain	23(3.5 %)
Hip joint pain	8(1.2 %)
Wrist, hand pain	6(0.9 %)
Lower limb pain	4(0.6 %)
Upper limb pain	3(0.5 %)
TMJ disorder	3(0.5 %)
Thoracic pain	3(0.5 %)
Elbow pain	1(0.1 %)

## 2) 비근골격계 질환

비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총 52건으로 추나치료 체험을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가 18건(2.6 %)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화 방지, 피부 개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17건(2.5 %)이었다.

내과·정신과·피부과적 질환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도 있었으나, 한방 진료 체험, 미용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13건(1.9 %)에 그쳤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Non-musculoskeletal Chief Complaint

Chief Complaint	Cases%(n=52)
<i>Chuna</i> manipulation experience	18(34.6 %)
Beauty	17(32.7 %)
Internal medicine	9(17.3 %)
Body shape correction	2(3.8 %)
Hemiplegia	2(3.8 %)
Dermatology	1(2.0 %)
Psychiatry	1(2.0 %)
Tonic medicine	1(2.0 %)
Medical examination	1(2.0 %)

## 6. 치료 내용 분석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어떠한 종류의 치료라도 받은 환자가 561명으로 전체의 83.1 %의 환자가 한방치료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치료가 시행된 것은 일반 침 치료로서 483건(71.6%)에 달하였다. 약침치료와 환제 한약치료, 추나수기요법은 각각 460건(68.1 %), 435건(64.4 %), 400건(59.3 %)으로 절반이 넘는 환자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치료는 탕제와 환제의 치료 비율이 상이하였는데 탕제 치료는 총 227건(33.6 %)으로 환제 치료의 절반 수준이었다.

뜸치료와 봉침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 횟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Foreign Patients According to Treatment

Treatment	Cases%(n=561)
Acupuncture	483(86.1 %)
Pharmacopuncture	460(82.0 %)
Herbal medicine(pill)	435(77.5 %)
<i>Chuna</i> manipulation	400(61.4 %)
Herbal medicine(decoction)	227(34.9 %)
Therapeutic exercise	112(17.2 %)
Electroacupuncture	109(16.7 %)
Moxibustion	24(3.7 %)
Bee venom acupuncture	20(3.1 %)

## IV. 고 찰

경제적이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부터 시작한 의료 관광은 과거의 협의 개념에서 광의 개념으로 이행해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와 관광 서비스가 결합되어 형성된 일종의 특화 관광 상품으로서 높은 수익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블루오션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sup>15)</sup>.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의 최신 의료 기술, 지리적 이점 등과 결합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 진료는 2011년 외국인 환자 진료 중 6.3 %에 불과한 점유율이지만<sup>11)</sup>, 의료 관광 분야에서 한방 진료가 시작하 이래 매년 127 %의 고성장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질적인 투자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미용 의료관광

상품에 집중된 외국인 한방 진료에서 벗어나 치료 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적극 알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기타 질환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한의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친밀도 및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이라도 치료 목적으로서의 한방 진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해소를 위하여 거부감 없는 척추전문 한방병원으로의 내원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각에서는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한방 피부 미용, 한방 마사지, 한방 다이어트, 한방 랩핑, 한방 성형 등 아이템 개발의 활성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sup>6)</sup>. 그러나 엄연한 치료 의학으로서 이어져온 한방 진료를 미용이나 체험 위주의 관광 상품으로만 발전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 서비스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인도의 의료관광 상품은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것이 전체의 60%에 달하며<sup>17)</sup>, 태국 역시 전통 의학과 접목된 의료관광 상품을 적극 내보이고 있다<sup>6)</sup>. 우리나라의 한방 의료관광 역시 전통의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치료 중심 의료관광 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척추전문 한방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는 2012년에 675명의 초진 내원이 있었다. 그중 여성이 395명, 남성이 280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40대의 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내 외국인 환자 통계상 30대, 20대, 40대 순으로 외국인 환자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sup>11)</sup> 척추전문 한방병원의 진료 과목 특성상 장년층의 내원이 더 많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 국내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는 미국·일본·중국 순이었으나<sup>11)</sup>, 본 연구에서는 일본·러시아·미국 순이었으며 중국인 환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구 기관이 한방병원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자국 내에서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중국인의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 및 기대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러시아로부터의 유입은 지리적인 이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대체로 고른 분포로 내원하였으며 5월이 71명이 내원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동절기엔 점차 환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 관광의 특성상 관광과 연계된 국내 유입 의도가 동절기엔 감소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료 기간을 2012년 내로 한정하였을 때 평균 진료 기간은 27.4일이었으며 평균 내원 횟수는 5.1일이었다. 내원 횟수는 1회부터 48회까지 다양하였는데 진료 기간이 길거나 내원 횟수가 많은 환자는 한방 의료관광을 통해 유치된 것이 아닌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환자가 장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159명(23.6%)의 환자가 단 1회만 내원하였는데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상담 또는 한방 진료 체험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 환자의 주소증은 경추, 흉추, 요추 등을 포함한 척추부의 통증이 526건(77.9%)으로 제일 많았으며 관절부의 통증이 124건(18.4%)이었다. 비근골격계 질환(18.4%)(7.7%)건에 그쳤는데 한방 진료에 친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라 할지라도 치료 목적으로서의 한방 진료 또는 전문 치료를 위한 한방 병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외국인 환자 중 한방 치료를 받은 사람은 561명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114명은 상담 위주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치료 중 일반 침치료가 483건(7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침치료, 환제 한약치료, 추나수기치료가 각각 460건(68.1%), 435건(64.4%), 400건(59.3%)으로 이어졌다. 한약치료 중 탕제의 처방은 227건으로 환제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내국인에 비해 진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관광에 대한 욕구도 있는 외국인 환자의 특성상 복용과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한 제형에 대한 의료진의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뜸치료와 봉침치료는 각각 24건과 20건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매우 적었다. 두 가지 치료 모두 내국인의 한방 진료 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뜸치료는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냄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포, 발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침치료는 적극적인 봉침 시술을 위해 필요한 봉침에 대한 적응 기간의 부족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환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진의 선택적 진료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미용과 체험 위주로 행하여지던 기존의 한방 의료 관광이 질병에 대한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 상품으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벗어나 치료 목적으로서의 한방 진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국가로부터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선택적인 진료를 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척추전문 한방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환자의 수가 충분치 않으며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순수한 한방 의료관광의 의도로 내원한 환자와 국내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 환자의 구별이 어려워 한방 의료관광만을 의도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기간 및 내원 횟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 외국인 환자의 통계는 발표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통계<sup>13)</sup>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 빠른 투자와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원의 관점에서 외국인 환자 현황과 치료를 중심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도하여 내원 동기나 경로, 치료 만족도 등에 대한 외국인 환자 의도의 충분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치료 과정 전후의 사항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환자 현황과 결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용, 체험 위주의 한방 진료에서 벗어나 척추전문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진료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치료 목적이 주가 되는 한방 의료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로부터 한방 의료관광 분야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치료 목적으로서의 한방 진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환자의 질 환별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과 내원 현황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방 성형 및 미용과 한방 진료 체험에 집중된 외국인 환자의 한방 진료에서 벗어나 치료 의학으로서의 한방 진료를 알리고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치료 목적의 한방 진료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한방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일반 관광객의 약 2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sup>10)</sup> 상당수가 1주일 이내에 진료를 마치고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따라서 1회성 진료로 끝나기 어려운 한방 진료의 특성상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치료를 통하여 짧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호전이 가능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봉침, 뜸 등 단기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거나 외국인에게 친숙하지 않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대체할 방법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봉침치료는 원활한 시술을 위한 충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며 외국인 환자의 체류 기간에 비해 과민 반응에 대한 대처 및 적응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뜸치료 과정 중 생기는 연기와 냄새 및 화상, 수포와 같은 부작용은 외국인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치료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 약침과 경피 경근 온열요법 또는 경피 적외선 조사 요법 등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척추전문 한방병원에 초진 내원한 외국인 환자 675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성 환자는 395명, 남성 환자는 280명으로 여성 환자가 더 많았으며 남녀 합하여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러시아·미국 순으로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세 국가를 합하여 469명이 내원하여 전체 외국인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가 높은 중국의 경우 1명의 내원 환자가 있었다.
3. 월별 방문 환자 수는 연중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1회만을 내원한 환자가 159명이었다. 2012년 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진료 기간은 27.4일, 평균 내원 횟수는 5.1회였으며 내원 횟수는 1회부터 48회까지 다양하였다.
4. 근골격계 통증을 주소로 한 경우가 650건이었으며 그 중 척추부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526건으로 전체 질환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관절부 통증은 124건, 비근골격계 질환은 52건이었다.
5. 일반 침치료가 483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침치료, 환제 한약치료, 추나수기치료가 각각 460건, 435건, 400건으로 많았다. 뜸치료와 봉침치료는 각각 24건, 20건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시행 건수가 월등히 적었다.

이로부터 기존의 미용 및 체험 목적의 한방 의료 관광에서 벗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방 의료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료 목적의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 치료기간 단축을 위

한 진료 프로그램 개발, 단기적 부작용을 줄일 선택 치료 및 대체 치료방법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할 것이다.

## VI.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rategic Approach to promote Korean Oriental Medical Tourism,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 1-19.
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0 Statistics on International Patients in Korea, Seoul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1 : 66.
3. Lee WK, Chung BW. A Case Study for the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Journal of Medical Tourism*, 2007 ; 21(2) : 389-406.
4. Han JH, Lee KJ. The Analysis of South Korea Medical Tourism Services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s by Medical Tourists and Hospital Staff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011 ; 16(4) : 20-30.
5.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Strategic Approach to promote Korean Oriental Medical Tourism, Seoul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09 : 1-170.
6. Lee HS, Chun HJ, Kim KH. Choice Attributes of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nsumer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010 ; 12(4) : 345-62.
7. Kim SM, Choi MK, Oh JY. Effects of Country-image on Expectation of Medical Tou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2009 ; 37(4) : 87-99.
8. Kim MJ, Kim SS. Identifying an Optimal Medical Tourism Product Preferred by Japanese Tourists: A Mixed Logit Model, *Korea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10 ; 34(2) : 281-307.
9. Chun MS. A Study on Medical Tourism Product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Autumn Conference ; 2007 Dec 1 ; Goyang, Korea, Goyang :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07.*
10. Yoon SM, Han JS, Kim HR. A Study on the Effects Relation of Medical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and Clients' Satisfaction for the Medical Tourism, *Journal of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2009 ; 10(1) : 137-57.
11.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1 Statistics on International Patients in Korea, Seoul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 : 1-41.
1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Medical Tourism overview 2012,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1 : 14-66.
13. Korea Tourism Organization, Medical tourism marketing research,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8 : 27-32.
14. Kim WJ, Choi YM. Korea Medical Tourism Growth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tatu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0 ; 9(27) : 1-26.
15. Cho YS. A Study for the Effect of Medical Tourism Service Failure and Recovery on Medical Tourist Trust and Behavioral Intention-Focused on Japanese Medical Tourist-. *Proceedings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Autumn Conference ; 2009 Dec 4 ; Seoul, Korea, Goyang :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09.*
16. Yoon BK, Lee EM. An Exploratory Study on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in Korea Traditional Medical Tourism,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2012 ; 24(6) : 117-35.
17. Lee KE, Jeong JE, Lee YS. A Strategy for Improving Korean Medical Tourism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Market, *Proceedings of the KAIS Spring conference ; 2010 May 28-29 ; Choeran, Korea, Choeran :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